

# 은행권 'AX 본격화'... 내부통제·AI 보안 역량강화 총력전

AI 데이터 분석과정 정보침해 우려 4대은행, 작년 정보 보호에 1538억 디지털 내부통제·보안 부서 신설 정보보호 인력도 400명으로 확대

국내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과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도입 등 디지털 전환(AX)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안 강화와 AI 대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커졌고,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도 현실화 해서다. 각 은행들은 보안 관련 지출을 늘리고 내부통제 및 보안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보안역량 강화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보안 관련 지출을 늘리고 전담 인원을 늘리며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지난해에만 1538억원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했고, 올해 상·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디지털 내부통제 및 보안 부서를 신설하며 보안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기들이 모여있는 모습. /뉴스시스

업무를 고도화했다. 지난해 도합 368명 수준이었던 4대은행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올해 상반기엔 약 400명까지 늘었다.

국내 은행들이 보안 강화에 힘쓰는 것은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도입 등 디지털전환(AX)이 본격화하면서 차세대 보안 리스크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AI나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거래 데이터나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실 거래 등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의 보안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금융 거래 대부분이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기반한 비대면 환경으로 이동했고, 각 은행은 직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은행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

다. 각종 상담업무에는 이미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담대 등 일부 대출 심사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AI나 SaaS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전산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접촉하는 지점이 늘어나면 보안 위협도 커지게 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각 은행들은 선제적인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이 압박했다는 관측도 국내 은행들이 보안 강화에 힘쓰는 이유다.

최근 차세대 프린터 AI 모델(최상위 성능을 갖춘 AI 모델)들은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해당 수준의 AI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해외 금융권에서도 AI 대응을 위

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은 은행권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 은행들은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위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색하는 등 대응을 고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안목적의 AI 활용 테스트, 보안취약점 대응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은 효율화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이지만, 각종 업무에 AI가 도입되면서 보안 위협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는 만큼, 각 은행들도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보보호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LH 신입 사장에 이성훈 靑 국토교통비서관

공공주택 공급 확대·조직개편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7대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사진)이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성훈 신입 사장이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신입 사장은 1973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충북고와 고려대 토목환경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



다. 1996년 제32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정통 국토교통 관료다.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하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국토교통 현안과 정책 조율을 맡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정책국장도 역임했다.

이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는 LH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의 추진 속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신입 사장 앞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쇄신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민·관 합동 LH 혁신위원회가 LH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취임을 계기로 조직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82개 기관 참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내달 19~20일 DDP서 개최

은행·증권·보험·금융공기업등전(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권 최대 규모 채용행사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 19~20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번째 개최를 맞는 공동채용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상세한 채용 정보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금융기관 82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다. 각 회사는 취업 일정 소개는 물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현장면접과 모의면접, 채용상담, 컨퍼런스, 직무체험 등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 준비 단계와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 공개되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가 금융기관별 채용



정보, 합격 전략, 조직문화, 최신 소식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금융권 직무백서 5.0'을 배포한다. NCS 등 금융권 필기유형을 반영한 모의시험과 해설 강의를 볼 수 있는 '금융권 취업준비 All in one 클래스'도 운영된다.

8월 19일 및 20일 현장에서는 다양한 면접·채용상담과 컨퍼런스·강좌 등 직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특히 높은 현장면접은 총 12개 은행에서 진행하며, 오는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전형은 통과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면 향후 해당 금융기관의 공채 전형에서 서류전형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장면접 외에도 면접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면접도 운영한다.

/안승진 기자

## 캠코 1.1조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조110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169건을 공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2076건, 동산 93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0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69건을 포함해 총 544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731건 포함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 이번주 '트리브김해' 총 398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호반써밋푸름III' 등 3곳서 모델하우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3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98가구다.

두산에너지리더는 경남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에 '트리브김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99㎡ 1307가구 규모다. 단지는 거제의 핵심 산업 기반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한화오션과 인접해 차량 출퇴근이 용이하다. 하나로타운, 거봉백영원, 거제고현시장, 흠플러스, 거제중합운동장, 거제시청 등 주요 인프라가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다. 고현초·중, 거제도서관 등이 가깝고 단지 뒤편으로는 계룡산이 자리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롯해 내외지구 학원가도 위치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푸름III', 경기 부천시 역곡동 '역곡지구하우스토리(신호희망타운)', 경남 김해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상동2지구 일원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99㎡ 1307가구 규모다. 단지는 거제의 핵심 산업 기반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한화오션과 인접해 차량 출퇴근이 용이하다. 하나로타운, 거봉백영원, 거제고현시장, 흠플러스, 거제중합운동장, 거제시청 등 주요 인프라가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다. 고현초·중, 거제도서관 등이 가깝고 단지 뒤편으로는 계룡산이 자리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온라인 쇼핑몰, 해킹 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행동요령 주민번호 전체·카드 비번 내자리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사이트 없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유의 사항·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 정보 탈취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최근 금융보안원은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피싱·해킹 공격으로 신용 카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을 포착,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문 공격 조직에 의해 탈취된 카드 정보는 총 570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정보는 주로 피싱 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 내 카드 결제 과정에서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특히, 피싱 페이지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신용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설계돼 정상 결제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결제 시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될 때는 즉각적으로 카드사에 카드 정지,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